



2006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농협경북지역본부, 전국한우협회대구경북도지회, 구미시가 공동 주관한 '2006 경북한우경진대회'가 10월13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IMF 및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한우생산농가 및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경북

한우의 혈통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역간 비교평가로 한우산업 발전도모는 물론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고급육품평회가 먼저 개최되었고, 당일에는 한우품평회, 소비촉진행사, 전시관운영, 축산인화합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북지역의 한우의 우수성을 위해 노력한 축산농가들을 격려하기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병대 한국중축개량협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김정남 축산물등급판정소장, 남유진 구미시장, 이상백 상주시장, 김복규 의성군수 방대성 경북도의회부의장, 전인철 구미시의장, 박순범 도의원, 이용석 도의원, 윤창욱 도의원, 김영택 도의원, 백천봉 도의원, 여정수 한우클러스트사업단장, 서인석 농





협경북지역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뜻을 더욱 더 빛나게 해주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디지털 도시 구미에서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게 힘쓴 축산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리를 뜻깊게 하여주길 위해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축산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축산에도 역시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족보(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품평회를 통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며, 모두가 뜻을 모아 잘사는 경북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환송인사말에서 “39만 구미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디지털도시 구미에서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WTO, FTA 등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도 곳곳이 축산을 지켜온 노고에도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우고급육품평회는 브랜드부문과 한우개별농가부문과 구분하여 한우수소(거세우) 28개월령이상 되는 우수 출품축 49두를 농협고령공판장에 9월18일, 19일 양일간에 도축, 심사위원이 육질, 육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한우고급육을 선발하였으며, 한우품평회는 4개부문(경산종빈우, 미경산종빈우, 암송아지, 수송아지) 총 97두를 출품하여 한우의 체중, 체측, 외모심사 등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하여 경상북도에서 최고로 우수한 한우(암소)를 선발하였는데,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입선축 가운데 선별하여 최고 시세대비 200%로 매입을 하게 된다.

한우육 소비촉진행사는 농협경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고품질브랜드 한우육 시식행사와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염가판매를 실시함으로써 본 한우경진대회에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한우협회대구경북도지회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최고급 한우육을 구입, 행사에 참여하는 구



미시민 및 소비자 단체 등에 고급육 무료시식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축산물종합전시관 운영은 경북대구에 소개하고 있는 사료 축산기자재 축산물가공장 등 축산관련 업체의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새로운 정보교환 기회와 축산물 브랜드 업체의 염가판매 행사를 시행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우클러스터사업의 홍보관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한우생산이력시스템 및 경북한우의 고유브랜드인『참품한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위생성 및 안전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축산인 화합한마당행사는 도내 한우농기들을 권

역별(동, 서, 남, 북)로 나누어 다양한 게임 및 체육행사를 진행으로 한우농가의 화합의 장을 마련,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외 이벤트행사로 도립국악단 공연 및 축산인 노래자랑, 유명가수 초청, 중국 기예단 공연,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 진행으로 축산인과 도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화합의 축제가 어우러졌다.

한우경진대회 결과

2006. 9.18~9.21일까지 농협중앙회 고령공판장에서 개최된 경북 한우고급육품평회를 개최한 결과 한우 브랜드부문 심사에서는 최우수상에 의성마늘한우(의성축협), 우수상에 상감한우(상주축협), 장려상에 경주천년한우(경주축협)가 수상하였으며, 개별농가 부문에서 황진홍(구미시 고아읍 고아리) 농가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에는 김종인(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장려상에 구진모(성주군 금수면 명천리)가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특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상장 경매에서 브랜



드 부문 우수상을 받은 상감한우 장경윤(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농가의 수상축은 전날 평균 가격보다 27% 높은 kg당 1만9089원에 경락돼 총 도체중량 380kg으로 지육대금만 무려 725만원을 정산 받았다.

한편 경북한우 고급육품평회는 경주천년·금천설우·안동·영주·상감·문경약돌·의성마늘한우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한우 브랜드 21두가 7개 시·군에서 출품돼 최우수상을 놓고 각축을 벌였으며 일반 부문도 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고령·성주 등 12개 시·군에서 20두가 출품한, 총 41두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4개부문 총 97두가 출품된 한우품평회에서는 대학교수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한우개량부문 전문가 7명의 심사위원이 개체심사와 비교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선축이 선발 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경산종빈우 부문 김운식씨(상주시), 미경산종빈우 부문 엄태수씨(영천시)가 각각 차지해 300만원씩 상금을 받았고 암송아지 부문은 김정재씨(고령군), 수송아지 부문 신일수씨(의성군)가 차지해 상금 200만원씩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경산종빈우 부문 이봉재씨(의성군), 미경산종빈우 부문 구교철씨(성주군)가 각각 차지해 200만원씩 상금을 받았고 암송아지 부문은 노영창씨(예천군), 수송아지 부문 안인영씨(고령군)가 차지해 상금 150만원씩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경산종빈우 부문 오세윤씨(김천시), 미경산종빈우 부문 서광석씨(영주시)가 각각 차지해 150만원씩 상금을 받았고 암송아지 부문은 엄태수씨(영천시), 수송아지 부문 구교철씨(성주군)가 차지해 상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체축을 하고 있는 체축위원들



김관용 도지사의 최우수상 시상



서인석 본부장의 우수상 시상



전영한 지회장의 장려상 시상